



이것은 도무지 理解하기 힘들다.

그런데 또하나 理解하기 힘든 것은 이 龜趺에서 열마 안떨어진 곳에 자빠져 있는 머리없는 花崗岩製石人이다. 두손을 숨쳐 右肩앞에서 무엇인가를 받들어 들고 있는 모습인데 이 石人의 彫刻이 優秀함은 說明을 불일 必要가 없다. 體軀의 肉體感도 그렇거니와 衣褶 特히 소매의 그것 은 말할 수 없이 뛰어난 것이다. 이것도 李朝의 石人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며 아무래도 高麗以前으로 올라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部落의 老人말에 依하면 自己가 젊었을 때는 碑身이 있었는데 누가 石材로 깨뜨려 써버린 것이며 龜趺있는 곳 上方에 큰 石室墓가 있

말을 끊으려고 마 주앉은 사슴의 寫實 的인 描寫라든가 뛰어난 모델링은 놀라 울 程度이며 動物의 生命感과 運動感을 이렇게 效果的으로 나타낸 作品은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다. 아무리 보아도 이 碑首와 龜 趺가 同一時代 同一 人의 所作이라고는 想像하기 힘들며 彫 刻自體를 보아서는 이 碑首는 高麗以後 로 떨어져 갈 것 같지 않다. 그런데 龜趺는 嚴然한 李朝—그것 도 中期頃의 것이니

었는데 모두 파헤쳐서 石材로 썼다는 것이다. 아닌게 아니라 그 近處 골짜기에 다들질한 石材가 굴러다니고 있다. 그런데 더욱 異常한 것은 깨뜨리기 以前의 碑身에는 이것이 李 適의 墓라고 써있었다는 것이다. 李 適 이라면 平安兵使로 있다가 仁祖二年(西紀一六二四年)에 亂을 일으켜 한 때 서울을 占領했던 武將이며 끝내는 部下에게 利川에서 殺害당한 사람 인데 이러한 逆賊의 墓를 이렇게 크게 쓸 수가 없으며 이것이 李 適의 墓라는 것은 到底히 생각할 수 없다. 碑身에 李 適의 이름이 있었고 그것이 部落사람의 눈에 띄일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면 그것은 아마 李 適의 이름이 있었고 그것이 李 適이 書家로서 적혀있었는지 모른다. 事實 李 適은 武人이면서 能文善書로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나의 推測이 맞는다 하더라도 이 무덤은 結局 李 適의 時代를 올라가지 못하 는—말하자면 李朝中期의 무덤이 되는데 어떻게 그런 石物이 있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或은 古墓의 石物을 훔쳐다 세운 것인지 何 如든 異常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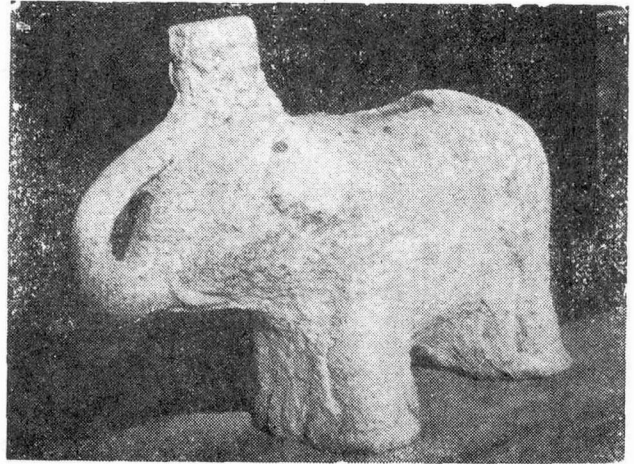
(追記) 이 石物은 文化財保存會에 登錄되어 있으니 아무도 움직일 수 없다.



新出石象一例

全 瑩 珮

近者 古寺趾 遺來品으로 傳해지는 조고마한 石象一軀를 過眼하였는데



寡見에 依하면 如斯한 形式의 石象이 우리나라에서 나온 例를 보지 못했기 故에 簡單히 紹介하고 자 한다.

花崗岩으로 彫刻된 귀염성스러운 幼린 코끼리 같이 보이는 이 石象은 짧고 硬直한 四肢에 充實한 體軀가 올라앉았고 머리로 因하여 幼린 코로 因하여 幼린 마한 눈이 더욱 氣分 늘어진 것 같은 氣分이 나타나고 있다. 잔등이 위에는 矩形의 깊숙한 홈이 彫刻되어 있다.

여져 있고 머리 위에는 圓筒型의 幼그만 臺座같은 것이 있다. 長은 六六cm 高는 五九·五cm인데 花崗石의 表面은 익숙한 솜씨로 自由롭게 다듬어지고 있으며 特別히 머리 위로 陷아올린 코는 더욱 精巧하게 彫刻되어 매우 아름답다.

이 石像이 墳墓裝飾에 使用되는 따위의 彫刻이 아닌 것은 그 크기로 보나 또는 잔등이 위에 홈이 패여 있는 것을 보아도 分明하며 또 머리 위에 圓筒型臺座가 있는 것 등으로 미루어 보면 이것이 코끼리만을 表現하려는 獨立된 裝飾用 彫刻이 아니고 다른 目的으로 만들어진 것이 分明하다.

이 石像은 틀림없이 佛像의 臺座로서 彫刻된 것이 確實하다고 생각된다.

다.

象臺를 가지는 佛像으로는 普賢菩薩像과 또 하나는 五智如來의 所變인 五大虛空藏中의 一像으로 金剛虛空藏像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範圍로는 普賢菩薩像이 많아서 우리 나라에도 近世의 木像이나 銅像이 남아 있으며 外國에는 彫刻 또는 繪畫로 알려져 있는 것이 많이 있다.

이 石像의 年代는 確斷할 수는 없으나 普賢菩薩이 古來로부터 두터운 信仰을 받아온 事實로 미루어 보면 이 石像의 彫刻自體에서 오는 느낌과 아울러 아마 高麗時代로 推測해도 無妨한 것으로 생각된다.

慶州 昌林寺址附近 出土의 仰花

朴 日 薰

昌林寺址는 慶州 南山 西麓의 傾斜地帶에 遺存한 古寺址의 一部分이 남아 있는 아래層 地帶에는 頭部를 缺失한 雙頭龜趺 一基가 있고 上壇에는 八部衆像을 彫刻한 莊重한 廢塔이 있고 礎石과 瓦當破片이 隣近에 散在하고 있다.

이 仰花는 寺址 北쪽에 隣接한 南潤寺址와의 中間 地點에서 發見되었다. 이 兩寺址 中間에 貯水池가 있어 北쪽 池畔기슭을 잇고 西쪽으로 흐르는 溪川은 暴雨가 있을 때마다 不安하여 隣近의 石材를 옮겨다가 補強하였는데 이 仰花도 그 中의 하나로서 數年前 洪水로 因하여 露出된 것을 附近의 耕作者가 搬出保管하였다

